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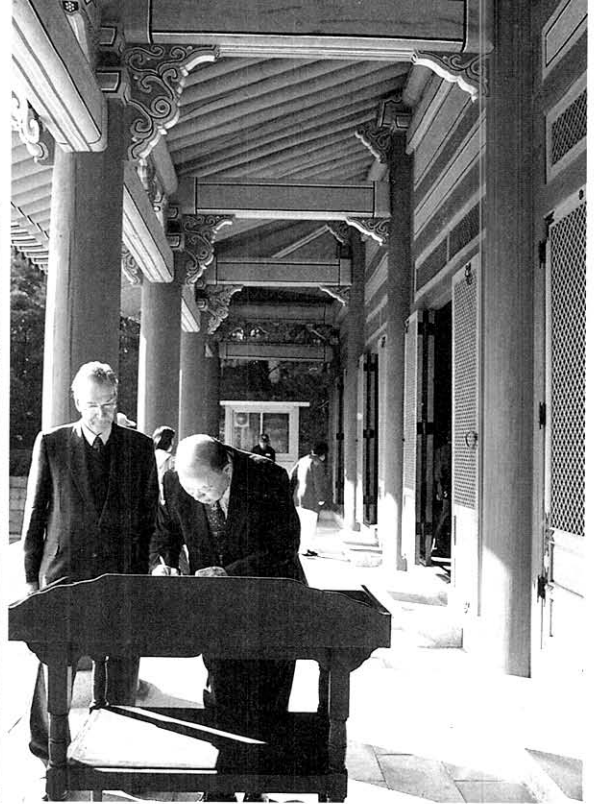
2004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

지난달 12일(화)부터 16일(토)까지 '2004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'이 열렸다.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박성모 목사, 고다 사토루 목사, 도널드 슈라이버 전 유니온신학대학 총장, 에드워드 베이커 하바드대 엔지니어링연구소 수석프로젝트 매니저, 델라 토레 필리핀 토지개혁운동가 등 70,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. 12일(화)에는 수유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함세웅 이사장의 환영사 및 사료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는 환영식과 환영만찬이 있었으며, 다음 날에는 광주 5·18 구묘역과 국립묘역을 방문하여 참배한 후 상무대 5·18자유공원에서 사업회가 주관하는 광주비엔날레 현장3 '그 밖의 어떤 것' 전시를 관람했다.

14일(목)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 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듣고서 질의,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. 15일(금)에는 4·19국립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한 후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다과회를 가지기도 했다. 이날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역사정리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피력했다. 이후 서울 YWCA에서 가진 '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'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필리핀, 미국 등 각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이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과거사 정리의 방법과 의의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다.

마지막 날인 16일(토)에는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여 김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으며,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해외민주화운동 사료 전시회장을 방문한 후에는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.





2004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



해외민주인사초청 환영만찬

일시: 2004년 10월 12일 18시 장소: 호텔 아카데미하우스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

